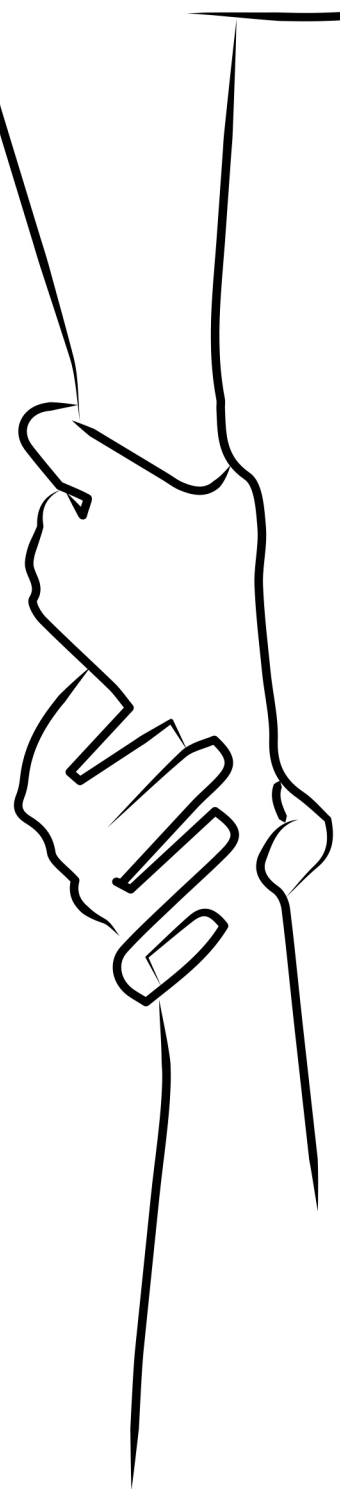




2025년 8월

소그룹 인도자, 참가자 공용



너희가

갈6:2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Part 1. 인생이 전쟁 같다고 느껴질 때

「교재 사용법」

- 1) 이번 교재는 하나의 주제가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걸쳐 이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 2) 첫 번째 모임에서 이 내용을 나누고, 두 번째 모임에서 모임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한 번에 모두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2025년 8월 | 캔사스중앙교회 | 소그룹 모임

▶ 가볍게 근황토크

- ① **【일상 나눔을 위한 가벼운 근황 질문】** 이번 주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 한 가지만 나눠본다면?
- ② **【서로를 더 알아가는 질문】** 요즘 자주 듣는 찬양이나 노래가 있다면? 그리고 이유는?

▶ 오늘의 성경 읽기 _ 히브리서 12장 1-3절

- 본문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합니다.

▶ in & out - 말씀 안으로 & 삶으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영어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s always something”

인생엔 늘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거나 항상 뭔가 일이 터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소개할 편지는 오래된 것이지만, 지금 읽어도 여전히 진실함이 느껴집니다.

“제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갈등’이에요.

모든 것이 전쟁처럼 느껴져요. 아이들과 싸워야 하고, 남편과도 싸워야 하고, 직장과도 싸워야 해요.

심지어 주님과도 관계조차 전쟁 같아요.

늘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부부관계도 어렵고, 서로 이해하는 것조차 힘이 들어요.

거기에 더해 제 안에는 끊임없는 내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어요.

웬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지 못해요.

도대체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요?

이 전쟁이 끝날 날이 오긴 할까요?

가끔은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마지막에 좋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생은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낙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존 밀턴은 이를 두고 「*잃어버린 낙원*(Paradise Lost)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반역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보다 우리에게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걸 안다고 생각해요.

당신 계획 말고, 우리 계획대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낙원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모든 것은 죄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다시,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땅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고장나 있습니다.

▪ **날씨**도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 재난, 토네이도, 허리케인 같은 일이 생깁니다.

▪ **경제**도 고장 났고, **우리의 몸**도 고장 났습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하지 않으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 **모든 관계**도 고장나 있습니다.

완벽한 결혼도 없고, 완벽한 자녀도 없으며,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낙심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우리의 인생에는 우주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세 가지 세력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육신, 세상 그리고 마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세 가지 전쟁

1) ‘육신’ — 내면의 전쟁

우리 안에는 **옛 본성,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은 항상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전쟁, 바로 ‘내면의 싸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 갈라디아서 5:17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 나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나요?
-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선택을 한 적이 있나요?
- 자멸적인 선택임을 알면서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면의 전쟁**입니다. (롬7:22-23)

성경은 이것을 **육신,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라면을 먹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더 먹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면, 더 만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2) '세상' — 주변의 전쟁 (문화와 세상의 압박)

두 번째 전쟁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전쟁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로마서 12:2

문화는 말합니다.

“네가 가장 예쁘지 않으면, 가장 재능 있지 않으면, 가장 완벽하지 않으면, 가장 똑똑하지 않으면, 넌 아무 가치도 없어.”

수석 졸업자가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살다간 사람'일 뿐이고,

당신의 인생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찬양하며,

나머지 99%의 사람들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장, 학교, 친구, 가족으로부터 수많은 압력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3) '마귀' — 당신을 향한 전쟁

세 번째 전쟁은 당신을 향한 전쟁입니다.

사탄은 실재하며, 진짜 마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한 존재입니다. (사14:12-15)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 베드로전서 5:8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결심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해치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한 도구, 정확한 방어 전략, 정확한 무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 전쟁을 이기는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

성경 속에서 전쟁을 이겨낸 사람들,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이 담겨 있는 성경의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다윗, 선지자들 ...

그들은 인생의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끝부분과 히브리서 12장의 시작 부분에

놀라운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해피엔딩을 맞는 건 아니다.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더라도

고통과 아픔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 **히브리서 11:35**

지난 100년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 수가,
이전 2,000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¹⁾
고문과 박해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 **히브리서 11:36-37**

그리고 이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 **히브리서 11:38**

그들은 광야와 산을 떠돌며 동굴과 땅굴에서 숨어지냈지만,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 땅에서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경주를 마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진리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음 세 가지 진리

1) 첫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만 충분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빚지지 않고, 고난이 없다는 '번영신학, 번영복음'은 거짓입니다.
성경이 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은

당신이 병들었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1) 「Operation World」에서 Patrick Johnstone와 Jason Mandryk가 추산한 결과를 고든콘웰신학교의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CSGC)에서 2011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인용하며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모든 일이 잘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시험입니다.

2) 둘째, 하나님의 약속 중 일부는 영원 속에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 80년 또는 100년의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당신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약속을 이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다 이루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3) 셋째,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계주 경주(Relay Race)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 히브리서 11:39-40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그 경주를 마치기 전까지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툼니바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가족, 곧 영원히 함께할 백성들을 세우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 구원의 경주를 이어오셨고,
이전 세대가 바톤을 들고 달리다가 우리 세대에 넘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들고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줄 것입니다.
그들은 또 자기들의 몫을 달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역사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이 경주는 계속됩니다.

상급은 경주가 끝나야 주어진다

우리가 올림픽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800미터 계주 경기에서 첫 번째 주자가 200미터를 달린 후에 “이제 제 금메달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어떨겠습니까?

분명 누군가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다려요, 경주가 아직 안 끝났어요.”

“전 제 구간은 끝냈는데요?”

“그래도 계주 경주에서는 모두가 마쳐야, 그 팀 전체가 승리를 얻고, 그때서야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상급들 중 일부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경주 전체가 끝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요셉과 여호수아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까지 경주를 마칠 때까지
그 상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낙심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해야 할 여섯 가지 강력한 열쇠를 소개합니다.
이는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눔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 + 기도제목 나누기”

【나눔1】 “최근에 내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내면의 전쟁은 무엇인가요?”
삶에서 반복되는 죄의 유혹이나, 지치게 만드는 내면의 싸움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 갈라디아서 5:17*

【나눔2】 “최근 세상(직장, 문화, 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압박은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는 모두 세상의 기준과 비교로 인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세상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나눠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로마서 12:2*

Part 2. 인생이 전쟁 같다고 느껴질 때

「교재 사용법」

- 1) 이번 교재는 하나의 주제가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걸쳐 이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 2) 첫 번째 모임에서 이 내용을 나누고, 두 번째 모임에서 모임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한 번에 모두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2025년 8월 | 캔사스중앙교회 | 소그룹 모임

지난 시간 마지막 질문을 떠올려봅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낙심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해야 할 **여섯 가지 강력한 열쇠**를 소개합니다.

1절부터 함께 읽어보면,
앞에서 말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 노아 같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말한 다음,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1-4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가 낙심할 때 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1. 낙심할 때는 ‘하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건 오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는 **당신을 지켜보는 관중**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 **욥기 31:4**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 **히브리서 12:1**

그 믿음의 증인들—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저들이 지금 당신의 인생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가 힘들다고? 나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어.”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불평 많은 백성 백만 명을 이끌어야 했어.”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나는 80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어.”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해냈다.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달려라.”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2.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라

경주를 끝까지 달리려면,
불필요한 짐과 방해되는 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봅시다.

...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 **히브리서 12:1**

여기서 ‘무거운 것(weight)’과 ‘죄(sin)’,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경주에서 탈락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둘은 서로 다릅니다.

‘무거운 것(weight)’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속도를 늦추는 것, 경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계, 직업, 취미, 운동이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일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면,

그건 죄는 아니지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경주를 달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 **어떤 관계**는 좋은 사람이지만, 당신의 영적 삶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직업**은 수입은 좋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취미나 습관**은 나쁘지 않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고 당신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해야 할 것은 아니다.”

살 수 있다고 해서 꼭 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일이라고 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NO’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NO 없이는 ‘GO’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짐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기억 — 과거에 머물러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나 수치심 —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방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의 전통’**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 왔어.”

하지만 가족도 변하고 시대도 변합니다.

또는 **‘비현실적인 기대’**가 짐이 됩니다.

자신에 대해,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너무 과도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3.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 **히브리서 12:2**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견디셨을까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과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셨습니다.
잠깐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이 낙심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셨고,
고통스러운 수치를 당하셨으며,
배신을 당하셨고,
무고하게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4. 낙심할 때는 ‘예수님이 견디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 **히브리서 12:3**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적대감을 견디셨는지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욕먹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침 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럼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5. 낙심할 때는 ‘당신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 **히브리서 12:4**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 아직 피 흘리며 싸운 건 아니잖아.”

“순교의 피를 흘릴 만큼 싸우지는 않았잖아.”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경주는 끝나지 않았고,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6. 낙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받아들여라’

히브리서 12장 5-6절 말씀입니다.

⁵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렸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⁶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 **히브리서 12:5-6**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징계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편안하게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도록 훈련시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양육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비공개가 아니다 —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

이제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 **히브리서 12:1**

우리의 인생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수많은 증인들이 당신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정죄하거나 평가하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나는 80세에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으로 갔어.”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수백만 명의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끌었어.”

노아는 말합니다.

“나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

그들은 말합니다.

“너도 해낼 수 있어. 우리는 해냈고,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 살아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나눔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 + 기도제목 나누기”

【나눔1】 “최근 나에게 있어서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좋은 일이지만 경주를 방해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 히브리서 12:1

【나눔2】 “지치고 낙심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그 경험 속에서 어떤 위로와 회복을 받았는지도 함께 나눠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 히브리서 12:2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마치나요?】

⑥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⑨

모임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 왜 기도 제목을 나누나요?

- ▶ 기도제목을 보고,

함께기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보기도팀에도 요청도 가능)

- ▶ 기도제목을 보고,

다음 모임에서 더 관심 있게 다가가 줄 수 있습니다.

- ▶ 기도제목을 보면

현재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 기도제목이

기도제목이 출석체크를 대신합니다.